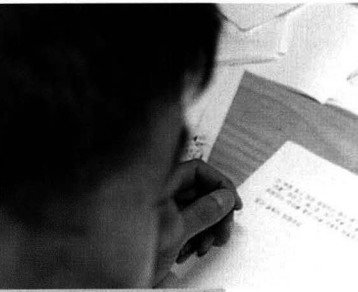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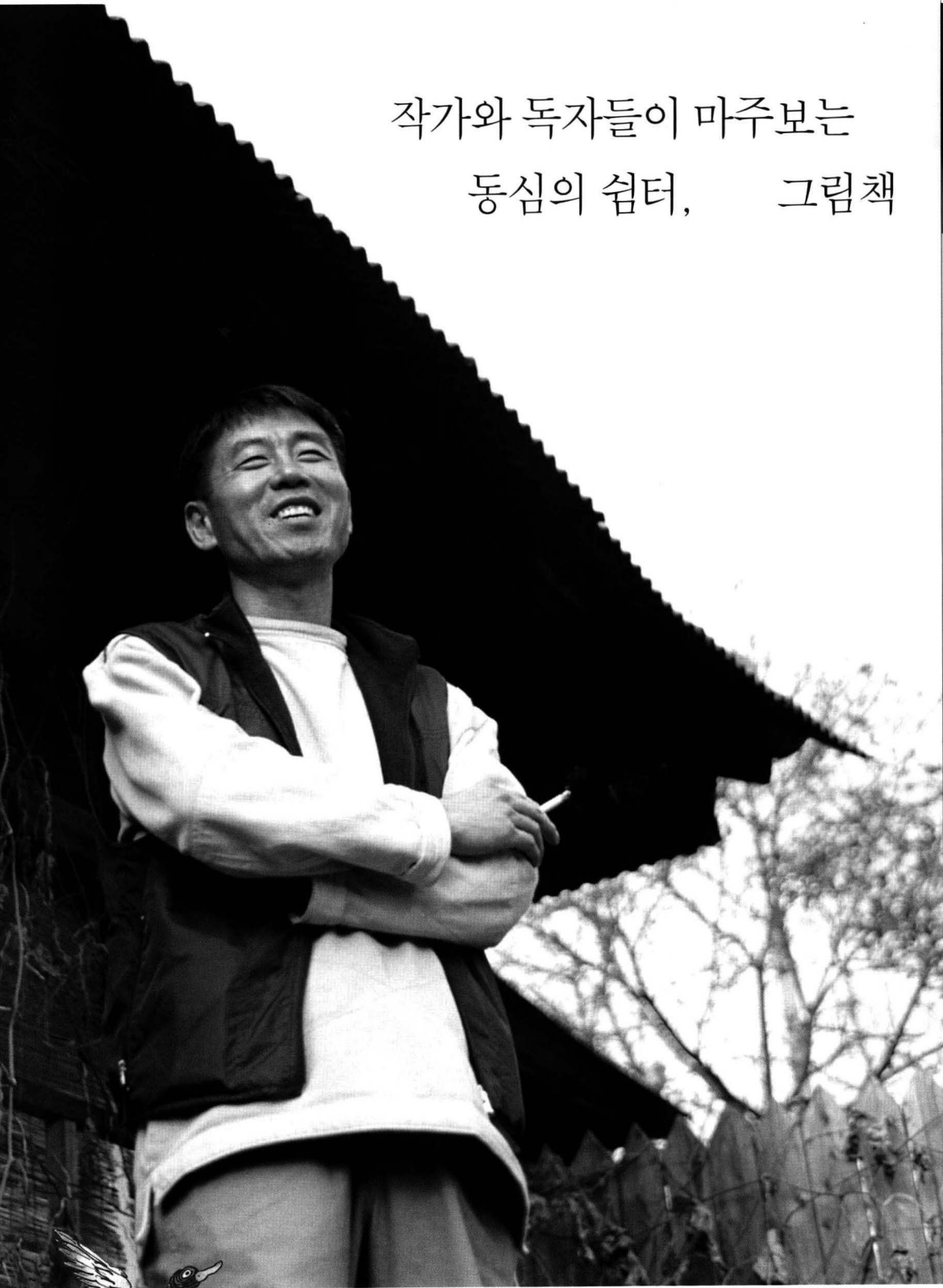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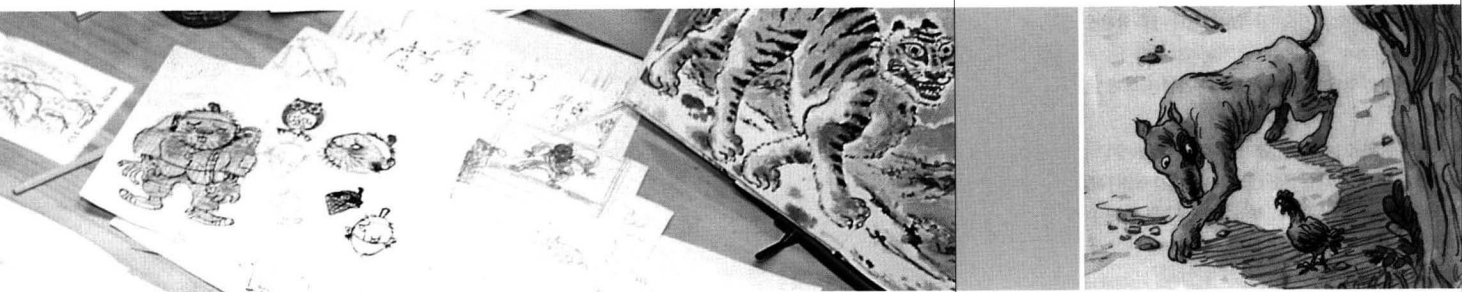
작가와 독자들이 마주보는 동심의 쉼터, 그림책



일러스트레이터 김환영 씨(44)는 '그림책' 과 경기도 '가평'에 큰 빛을 졌다. 그의 말대로라면 그는 "복잡한 손익을 따지기 바쁜 어른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 온 사람"이다. 그렇게 어른 세계와 화합하지 못했던 김씨에게 가평과 그림책은 '동심'의 자리를 내 주었다.

"다시 어린이가 될 수는 없지만 마음 둘 곳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그림책 작가'가 된 것, 그리고 '가평'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없는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림에만은 남다른 흥미를 갖고 있었다. 현재 중학교 미술선생님으로 있는 형님



을 따라 만화를 그렸던 기억, 초등학교 4학년 때 미술 선생님을 뒤쫓아가다 발길이 닿은 서울 인사동 부근의 미술관 풍경과 전시장에 걸린 그림의 신비스러움은 여전히 그에게 설렘과 충만감을 준다.

“대학에서는 회화를 전공했습니다. 졸업하고 그림과 관련된 일은 다 해본 것 같아요. 1987년부터 금성아트프로덕션(금성출판사 자회사) 일러스트부에서 1년을 일했고 프리랜서로 독립하면서 만화, 판화 등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또 1996년에는 시사만화가 박재동 씨가 만든 애니메이션 제작사 오돌또기(연출부)에서 약 3년간 일하기도 했죠. 물론 중간에 전속작가로 활동한 경우도 있었구요.”

그는 ‘이 일이 나에게 맞는가’를 검증할 겨를도 없이 그림 그리는 데만 열중하다 세월을 많이 흘려보냈다.

그가 회화중심의 사고가 자신의 코드와 맞지 않는 걸 느낀 것은 출판물을 준비하면서부터. 특히 그는 조세희 씨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장편 만화로 옮기면서 책 작업의 즐거움에 빠져들었다. 그렇지만 그림책에 대한 확신이 생긴 것은 ‘한겨레 아동문학 작가학교’를 통해서다. 그는 1999년 ‘한겨레 아동문학 작가학교’에서 동시, 동화 창작은 물론이고 아동문학 교육을 전반적으로 공부했다.

“그동안 너무 많이 해맸습니다. 사실 손으로 되는 것은 어지간하면 다 할 수 있을 경지에 이르렀죠. 그렇지만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채워지지 않더군요. 한겨레 작가 학교에서 6개월간 강의를 들으며 어린이로 돌아가 책을 만들고 그림 그리는 법을 다시 배워나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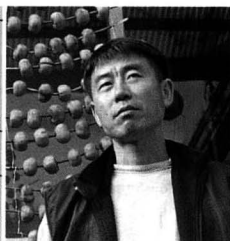
그는 작가학교에 다니면서 가방과 공책 등을 새로 샀다. 다행히 그곳은 그에게 어린이책 이상의 ‘동

심’을 가르쳐줬고 그림책에 마음을 둘 기회를 주었다.

그는 3년 전 ‘전격적으로’ 가평에 내려왔다. 40년 동안 서울에 살던 사람이 언고도 없는 곳에 정착했 이 오게 되었던 이유는 역시 마음 둘 ‘공간’을 찾기 위해서였다. 결과론이지만 전격적인 이주는 성공이었다. 5일마다 한 번씩 가평장에 나가고, 길 잃은 고양이를 데려다 키우고, 동네 어른과 인사를 나누는 그는 이제 가평 금대리 사람이 다 되어 있다. 사람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사는가 궁금해하지만 산에 가서 풀을 뜯어 보고, 먹어 보고, 계절이 바뀌는 것,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빠듯하다. 현암사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시리즈’를 선생님 삼아 별, 꽃, 나무, 별자리 등을 공부하는 즐거움에 시간 가는 줄 모를 때도 많다.

“서울에서 살았으면 사람 만나고 술만 먹었겠죠. 여기 와서 어떤 곡식을 언제 거둬야 하는지, 어떤 생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그림에 당장 어떤 도움을 주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체화되어 언젠가 그림에 드러나기를 기다립니다. 자연 관찰을 하는 게 좋아서 가을 전까지는 일을 많이 하지 않아요. 초겨울부터 곡식과 생명체들이 겨울잠을 자면 본격적으로 제 일을 시작하지요.”

그가 1년에 검토하는 원고는 책으로 쳐서 20권 분량 넘는다. 그렇지만 그는 이 중에서 한 편 정도를 선택해 그림을 그린다. 실제 그림을 그릴 원고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염두에 둔다. 첫째는 ‘진정성’이 있는가이다. 어디서 봤던 이야기, 가짜라고 생각되는 이야기는 보자마자 던져 버리기 일쑤다. 원고를 선정할 때는 “완벽한 플롯을 자랑하거나 유려한 문장을 뽐내는 글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일정 메시지를 전하려는 작가의 절실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그



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알고도 해도 그들을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한계도 있다.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부할 ‘꺼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걸 공유하게 되면 엄청난 쾌감이 느껴지고 배울 것들을 찾게 되거든요. 그것 만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독자’는 부담요소이면서 그림책 작가의 존재이유나 다름없다. 김환영 씨는 ‘어린이 독자’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일러스트를 하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말한다. 그만큼 그는 자신의 작품이 어린이들과 소통할 때 행복을 느낀다.

“회화작품은 화상(畫商)과 화랑이라는 제도를 거쳐야 하고, 대부분 고가(高價)이기 때문에 관객들과 만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화단의 문제점들도 많죠. 그런 탓에 일반 화가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중과 만나기 어렵습니다. 반면 출판매체는 다릅니다. 7,8천 원이면 독자와 작가가 만날 수 있고, 다량인쇄가 가능해서 독자 수에 제약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러스트레이션은 이처럼 독자와 만나는 것, 대중과 만나는 그림을 그리는 일입니다.”

그는 지금 또 한 권의 책을 준비중이다. 이번 책은 자신이 직접 원고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책이라 더욱 애착이 간다. 그는 “그동안의 작업에 나름대로 만족하고는 있지만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지는 못한 것 같다”며 이 책을 통해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랐다.

“우리나라는 어린이책 역사가 깊지 않죠. 늦은 나이에 헤매다 찾아왔으니 짧은 역사를 길게 이어나가는 작가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최근 그에게 즐거운 일 하나가 더 생겼다. 집 언덕 뒤의 죽은 줄 알았던 감나무가 살아난 것이다. 그는 이제 꽃감이 될 감을 보면서 “산으로 둘러싸여 춥지만 도시보다 보고 느낄 것이 많다”며 가평에 머무는 기쁨을 자랑했다. 그리고 가끔씩 찾아오는 출판사 사람들을 맞는 일도 그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기쁨이라며 겨울 채비를 하듯 더미북 위에 그림을 그려나갔다. ■

취재 김정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의 ‘그림책 철학’이 잣대가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작가와 아이들이 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음이 듭니다. 나무를 베어서 만드는 책인데 오래도록 반복해서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죠. 반복해서 보게 되는 책에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두 번째로 ‘역동성’이 있는가를 검증한다. 자신의 성향, 즉 자신의 코드와 맞는 이야기를 찾는 것이다. 애니메이션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변화무쌍하고 박진감이 넘치는 이야기를 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이다”는 생각이 앞서기도 하고, ‘필선이 막나간다’(필선이 힘차게 나간다)는 걸 느끼기도 한다.

이렇게 인연이 닿아 그가 그림을 그려낸 어린이 책은 유달리 큰 사랑을 받아 왔다. 《마당을 나온 암탉》, 《나비를 잡는 아버지》, 《종이밥》. 이름난 아동작가들의 글은 김환영 씨의 그림과 완벽한 조화를 이뤘다. 한 재료만을 고집하지 않는 그는 이 책들 속에서 원고에 맞는 다양한 화법(畫法)을 선보였다. 그 중에서도 그가 가장 애착을 갖는 책은 황선미 씨의 《마당을 나온 암탉》이다. 처음 원고를 읽었을 때 “이 책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머릿속에 그림들이 술술 그려졌다. 얼마나 욕구가 강했던지 출판사측에 그림을 그리겠다고 먼저 제안을 했을 정도였다. 그는 황선미 씨의 글에 매료된 것은 “내용상 밀도도 있고, 통찰력도 깊으며 움직임이 살아있는, 그래서 마음에서 배어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1년 걸릴 일을 석달 만에 완성했습니다. 정말 즐겁고 행복했죠. 마치 몸 안에 있는 무언가가 빠져나온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황선미 씨의 팬이 되어 그의 글을 열심히 읽는 독자가 되었죠.”

사실 어른이 어린이를 위한, 동심을 향한 작품을 한다는 게 녹록하지는 않다.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